월담: 이야기 너머

Beyond Narrative



이야기 너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 이전의 사람이, 가축 이전의 동물이, 가로수 이전의 나무가 이야기처럼 있습니다. 쓰는 일 너머에서 모든 경계를 지운 채 꿈으로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 자리에 있지만 그저 상상되었습니다, 죽음과 전쟁처럼.

어떤 것들은 줄곧 상상되었지만 그 자리에 없습니다, 생명과 평화처럼.

우리는 설계된 미래를 믿지 않습니다. 이미 말해진 미래가 미래일 리 없습니다. 그곳에는 과거를 재구성한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저 너머가 지금을 준거로 한 전망과 예측이 닿지 않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 너머는 목표가 아니라 약속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로서 거기 있겠다는 것. 저 새와 나무와 돌멩이들의 곁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언제나 이야기 너머에서 시작됩니다. 2022년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eyond narratives lie narratives.
There are people before citizens,
animals before livestock,
and woods before roadside trees
—just like narratives.
Beyond the act of writing, all boundaries are erased,
and things lay there like dreams.

Some things are present yet merely imagined, like death and war.

Some things are absent but have long been imagined, like life and peace.

We do not believe in a designed future.
A future that has already been narrated can't possibly be our future.
There, we'll only encounter the present reconstructed from the past.
We hope that the place beyond is out of reach of prospects and predictions based on the present.

Therefore, beyond narratives, there should be promises, not goals. We promise that we will simply exist as ourselves, standing by the birds, the trees and the stones.

New narratives always begin beyond narratives.

Welcome to the 2022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기획위원

Organizing Committee

우찬제 Wu ChanJe 강지희 Kang Ji-hee 김경욱 Kim Kyung-uk 김미월 Kim Miwol 신용목 Sin Yong-mok

만드는 사람들

Staff

▮ 공동주최 Host Organizations

한국문학번역원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인천국제공항공사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 후원 Sponsor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Korea

▮축제운영 Festival Team

한국문학번역원 LTI Korea

곽현주 Kwak Hyunju

조한밀 Cho Hanm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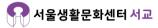
백지수 Alex Baek

심민주 Sim Minju

채혜인 Chae Hyein

박채연 Park Chae Yeon 송승민 Song Seung Min

■ 함께하는 사람들 Partners























The Earthian Ta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President	04
2	참여 방법 How to Attend	05
3	행사 일정표 Calendar of Events	06
•	개막식 Opening Ceremony	08
5	개막강연 Opening Keynote Speech	09
6	작가, 마주보다 One on One	10
7	작가들의 수다 Writers in Conversation	14
8	작가의 방 A Writer's Room	18
9	당신에게 가는 길 The Path to You	19
•	SIWF x EBS SIWF x EBS	20
•	참가자 소개 Authors & Moderators	21

인사말

Greetings from the President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이 소통하는 통로인 2022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월담: 이야기 너머'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으로 작가축제는 주요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화해서 진행해 왔지만, 중단과 단절이 아닌 새로운 소통과 연결의 창구를 찾고 교류와 연대의 끈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축제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온전한 일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8개국 12명의 해외작가와 23명의 한국작가들이 우리를 둘러싼 유무형의 장벽과 경계를 넘어 풀어내는 '이야기 너머의 다성적인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작가와 작품, 독자가 만나고 대화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가는 자리에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SIWF). a channel of communication for the world and Korean literature, is held this year under the theme, "Beyond Narrative."

For the past two years, the COVID-19 pandemic has reduced the scope of the festival to online events, but despite the limitations, we have sought for new windows of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encouraging exchange and solidarity, rather than ceasing the festival and severing ties with the global community.

The 2022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is hosted offline and online as we overcome the pandemic and as things start getting back to normal. Please join us in hearing from 23 Korean authors, and 12 authors from 8 countries abroad, as they surmount the tangible and intangible obstacles and boundaries that surround us to discuss in unison what lies beyond narrative.

Come join us—your input and support are greatly appreciated.

한국문학번역원 원장

곽휴화

Kwak Hyo Hwan

President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참여 방법

How to Att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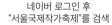
- 작가축제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is held both offline and online.
- 작가축제의 모든 행사는 사전 예약을 하셔야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며,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예약하시면 행사 시작 전에 실시간 중계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All the events must be booked in advance.

If you opt to participate through online streaming, pre-book the program for a live broadcast link, to be sent through a text message prior to the event.

사전 예약 방법 To pre-book





Log into www.naver.com. look up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예약' 버튼을 눌러 관람을 원하시는 행사를 선택하세요.

Click on 'Reserve Tickets' to select the events you wish to attend.



사전 예약은 축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Booking is also possible on the official website.



사전 신청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축제 굿즈를 증정해 드립니다.

Those with a pre-booked ticket will have a chance to receive free festival merchandise through a random draw.

에서이 Essays

오직 축제만을 위한 참가작가들의 에세이를 공식 웹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he official website features essays by participating authors, exclusive to the festival. now available for you to read.



공식 웹사이트

SIWF official website

www.siwf.or.kr/

SNS 이벤트 Social Media

서울국제작가축제 SNS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Join the various events through our social media!





@siwfest





행사 일정표 Calendar of Events





9. 27. Tue.	9. 28. Wed.	9. 29. Thur.	9. 30. Fri.
작가들의 수다 LHI의 꿈은 누구의 꿈인가 Writers in Conversation Whose Is the Butterfly's Dream? 조예은, 천선만, 나오미 크리처 Cho Yeeun, Cheon Seonran, Naomi Kritzer			지하는 전기의 방불가능적 가능성 A Writer's Room Impossible Possibilities 산타야고 감보아, 송병선 Santiago Gamboa, Song Byeong Sun
작가, 마주 보다 Olor기 너머 다시 Olor기 One on One Narrative Beyond Narrative 하성한, 사만타 슈웨블린 Ha Seong-nan, Samanta Schweblin	작가, 마주보다 순간과 영원 One on One Moments and Eternity 이원, 사샤 더그데일 Yi Won, Sasha Dugdale	작가, 마주보다 역사의 골짜기와 침묵의 기도 One on One The Valley of History and Prayer of Silence 암철우, 카리나 사인스 보르고 Lim Chul-Woo, Karina Sainz Borgo	작가들의 수다 글 쓰지 않는 시간 Writers in Conversation Time Out From Writing 김멜라, 유희경, 이주혜, 조해주 Kim Mella, Yoo Heekyoung, Lee Juhye, Jo Hae Ju
당신에게 가는 길 : 낭독회 2 The Path to You : Reading 2	작가들의 수다 이상한 날씨와 북극곰과 나 Writers in Conversation A Bizarre Weather, Polar Bears, and I	당신에게 가는 길 : 낭독공연 2 The Path to You : Performance 2	
6 Writers → P19	Shin Mi-na, Choi Sung Kak, Kathleen Jamie → P16	6 Writers → P19	



개막식

Opening Ceremony

제11회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일시: 9월 23일(금), 15:00

The Opening Ceremony of the 11th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SIWF) will be held on both offline and online platforms. It will be live-streamed on LTI Korea's YouTube channel.

Venue: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Seogyo

Date/Time: Sept 23 (Fri), 15:00

사회자 Moderator



장선영 Jang Sunyoung

축하공연 Performance



고우림 Ko Woorim



월담: 이야기 너머 Beyond Narrative

개막강연

Opening Keynote Speech

이야기를 하나의 '담'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담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익숙하고 단단한 담 너머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시집 『죽음의 자서전』으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그리핀 시문학상을 수상한 김혜순과 『Be With』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포레스트 갠더가 제11회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담을 허물고 이야기 너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일시:** 9월 23일(금), 16:00

Let's say that stories are 'walls.' We're surrounded by countless walls in life.

Perhaps the real story begins when we take our first step beyond a solid wall which we're familiar with. Kim Hyesoon, the first Asian woman to have won the Griffin Poetry Prize, with her poetry collection *Autobiography of Death*, and Forrest Gander, who won the Pulitzer Prize for his book of poems, *Be With*, kick things off for the 11th SIWF by breaking down walls and discussing what lies beyond.

Venue: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Seogyo

Date/Time: Sept 23 (Fri), 16:00

사회자 Moderator



김행숙 Kim Haengsook

참가작가 Speaker



김혜순 Kim Hyesoon



포레스트 갠더 Forrest Gander

작가. 마주보다

One on One

두 명의 국내외 작가가 그들의 작품 세계에 맞닿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담을 나눕니다.

Pairs of writers from Korea and abroad will discuss various issues of modern society in relation to their works.



Letters from the Future







논리정연하면서도 감수성 넘치는 서사로 지금 이곳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생생한 전망을 보여주는 두 작가, 김보영과 이윤하 두 분을 모시고 그들이 미래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어봅니다.

참가작가: 김보영, 이윤하

사회자: 심완선

10

일시: 9월 24일(토), 14:00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Kim Bo-Young and Yoon Ha Lee, whose articulate narratives full of sensibility lead us to ponder on the here and now, and help us get a clear glimpse of the world to come. have sent us letters from the future to read

Participants: Kim Bo-Young, Yoon Ha Lee

Moderator: Shim WanSeon Date/Time: Sept 24 (Sat), 14:00 Venue: Community House Masil

불안과 매혹 사이

Between Fear and Fascination



질주하는 세계

An Ever-speeding World







우리는 문학 작품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비로소 끝내 살아남은 여성 캐릭터를 생생히 마주합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매력적인 서사로 불안 그 자체를 삼켜버리는 두 작가, 한국의 강화길과 일본의 무라타 사야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시다.

참가작가: 강화길, 무라타 사야카

사회자: 강윤정

일시: 9월 25일(일), 16:00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There are times when we're faced with vital female characters in works of literature who manage to survive to the end, facing dark shadows head on. Let's listen together as the two authors from Korea and Japan, whose sweeping, compelling narratives swallow up fear, share their thoughts.

Participants: Kang Hwa Gil, Murata Sayaka

Moderator: Kang Yun Jeong Date/Time: Sept 25 (Sun), 16:00 Venue: Community House Masil





꿈틀거리는 생물처럼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며, 어디론가 질주해가는 소설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판권이 팔리며 뉴욕 타임스와 영국 가디언으로부터 최고의 스릴러로 주목받은 김언수와, 단 한 권의 소설로 '차세대 줌파 라히리'라는 찬사를 받은 메가 마줌다르가 만나 펼치는 흥미로운 대화에 귀 기울여 봅니다.

참가작가: 김언수, 메가 마줌다르

사회자: 강유정

일시: 9월 26일(월), 16:00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Once in a blue moon we come across novels that head somewhere at full speed, and wriggle like a living thing, not letting us shift our gaze.

Let's hear it from two authors—Kim Un-su. whose internationally-selling novel was hailed by The New York Times and England's The Guardian as one of the greatest thrillers of all time, and Megha Majumdar, accoladed as 'the next-generation Jhumpa Lahiri'—to find out.

Participants: Kim Un-su, Megha Majumdar

Moderator: Kang Yu-Jeong Date/Time: Sept 26 (Mon), 16:00 **Venue:** Community House Masil

이야기 너머 다시 이야기

Narrative Beyond Narrative



순간과 영원 Moments and Eternity







@Suhrkmn Verlag

삶이 그러하듯이, 이야기는 무수한 변곡점을 통과하며 어두운 터널에 침잠하기도 하고 때로는 빛을 항해 뚜벅뚜벅 걸어가며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과 고통을 정밀하고 섬세하게 그려내는 두 작가, 하성란과 사만타 슈웨블린이 함께합니다.

참가작가: 하성란, 사만타 슈웨블린

사회자: 강윤정

일시: 9월 27일(화), 16:00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A story—like life—unfolds without end, passing through turning points, withdrawing into dark tunnels at times, striding toward light at others. Thus stories let us move forward. Meet two authors—Ha Seong-nan and Samanta Schweblin, who portray the tragedies and pains of our era with exquisite precision and subtlety.

Participants: Ha Seong-nan, Samanta Schweblin

Moderator: Kang Yun Jeong Date/Time: Sept 27 (Tue), 16:00 Venue: Community House Masil





ⓒ강봉형

삶은 수많은 현재의 연속이고 그래서 영원히 미완입니다. 시침과 분침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매순간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이끌어도 어떤 현재는 기어이 각인됩니다. 사유로, 그리고 언어로 곡진하게 빚어내는 간절한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참가작가: 이원, 사샤 더그데일(온라인)

사회자: 이다혜

일시: 9월 28일(수), 16:00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Life is a continuation of countless moments, and thus forever incomplete.

Although the hour and minute hands of a clock lead us into different worlds every moment, moving incessantly, some moments are stamped in time for ever.

You are invited to hear the two whose innermost feelings are crafted with great care into thoughts and words.

Participants: Yi Won, Sasha Dugdale(Online)

Moderator: Lee Dahyeh

12

Date/Time: Sept 28 (Wed), 16:00 **Venue:** Community House Masil

역사의 골짜기와 침묵의 기도



The Valley of History and Prayer of Silence





②성태형

(Cleasm from 으해나므

어떤 폭력적인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긴 침묵의 기도와 닮은 글들을 통과하면서 역사가 남긴 상흔들은 가까스로 진실과 희망의 빛에 가닿습니다. 무거운 역사를 마주든 채, 5.18 민주화 운동의 작가로 불려온 임철우와 베네수엘라의 카리나 사인스 보르고가 만납니다.

참가작가: 임철우, 카리나 사인스 보르고

사회자: 양경언

일시: 9월 29일(목), 16:00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Some violent pasts dig a deep, dark valley in our hearts. But as we wade through words that resemble a long, silent prayer, the light of truth and hope are shed at last on the scars inflicted by history. Lim Chul-Woo, known in Korea as the author of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Karina Sainz Borgo from Venezuela, come face to face, holding the weight of history in their hands.

Participants: Lim Chul-Woo, Karina Sainz Borgo

13

Moderator: Yang Kyung-eon Date/Time: Sept 29 (Thur), 16:00 Venue: Community House Masil



작가들의 수다 Writers in Conversation

다양한 국적을 지닌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Writers from different corners of the world gather together to discuss various global issues with readers











하나의 단어를 고르느라 하루를 쓰고 그렇게 고른 하나의 단어를 다시 지우는 데 또 하루를 쓰는 삶이 낯설지 않은 작가라는 종족에게, 언어는 몸이면서 마음이고, 무기이면서 방패이자. 양식이면서 장난감인가 하면, 알맹이인 동시에 알맹이보다 값진 포장지일 것입니다. 김현, 오은, 우밍이 세 작가가 나누는 섬세한 언어들을 만나봅니다.

참가작가: 김현, 오은, 우밍이(온라인)

사회자: 황인찬

일시: 9월 25일(일), 14:00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To writers who easily spend an entire day searching for the perfect word, and another day crossing out the word. language is both the body and the mind. a weapon and a shield, food and a toy, the content and at the same time the package more valuable than the content itself. Three writers—Kim Hyun. Oh Eun, and Wu Ming-yi-present us with the subtle and exquisite language of literature.

Participants: Kim Hvun, Oh Eun, Wu Ming-yi(Online)

Moderator: Hwang InChan Date/Time: Sept 25 (Sun), 14:00

Venue: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Seogyo

새로움이라는 클리셰

The Cliché of the New



지도 바깥으로 열린 문



A Door That Opens Out of the Map





@Melmel Chung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국경을 넘는 이유는 무수히 많아진 지금, 다양한 디아스포라들을 그려온 작가들과 만나는 자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세 작가가 그려온 탈북민, 베트남 참전 군인, 결혼이주여성, 비전향 장기수 등과 함께 지도 바깥으로 문을 여세요.

참가작가: 강영숙, 천운영, 최돈미

사회자: 이다혜

일시: 9월 26일(월), 14:00

장소: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2. 3F 그레이트홀

In this day of fading national identity and everincreasing reasons to cross borders, you are invited to a gathering of authors who have explored various forms of the diaspora in their works. Join the North Korean defectors. Vietnam veterans. 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nd u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who appear in books by these authors as they push open the door that leads to a world outside of the map.

Participants: Kang Young-sook, Cheon Un-yeong,

Don Mee Choi

Moderator: Lee Dahyeh

Date/Time: Sept 26 (Mon), 14:00

Venue: Incheon Airport Terminal 2, 3F Public Area

(Great Hall)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전언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작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문학 작품에서 새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어디까지 새로울 수 있으며 그것의 미학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신인 작가 네 명의 목소리를 통해 새로움이라는 강박의 이면을 엿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참가작가: 이서수, 조온윤, 주민현, 현호정

사회자: 조대한

일시: 9월 25일(일), 19:30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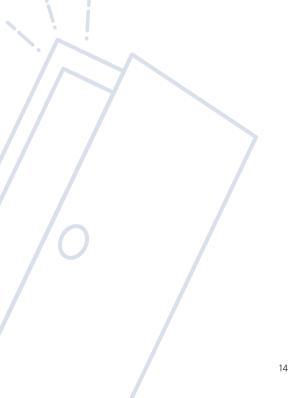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they still say, but most writers—especially the new—are not free of the compulsion to come up with something new. What does new mean in a work of literature? In what ways, and to what extent, can something be new, and what is its aesthetic value? Let's hear the thoughts of four new authors and have a look into the hidden side of the obsession with the new.

Participants: Lee Seo Su, Jo Onyun, Ju Minhyeon

Hvun Hoieong

Moderator: Cho Daehan Date/Time: Sept 25 (Sun), 19:30

Venue: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Seogyo



나비의 꿈은 누구의 꿈인가

Whose Is the Butterfly's Dream?



이경인 일세와 국극습 A Bizarre Weather.









@SONG Got

나의 꿈속에 나비가 들어온 것일까요, 나비의 꿈속에 내가 들어간 것일까요? 어떤 작가들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구분 짓지 않고 우리를 낯선 세계로 다정히 이끌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인간을 한계 없이 포옹하는 우주적 상상력으로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세 작가, 조예은, 천선란, 나오미 크리처가 만나 꿈같은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참가작가: 조예은, 천선란, 나오미 크리처

사회자: 심완선

일시: 9월 27일(화), 14:00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Did the butterfly make its way into your dream? Or did you slip into the butterfly's dream? There are authors who, without putting up a boundary between dreams and reality, gently lead us into strange new worlds. Cho Yeeun, Cheon Seonran, and Naomi Kritzer, authors who captivate us with their cosmic imagination, embracing all who are vulnerable and marginalized, come together and let dreamlike tales unfold.

Participants: Cho Yeeun, Cheon Seonran,

Naomi Kritzer **Moderator:** Shim WanSeon **Date/Time:** Sept 27 (Tue), 14:00

Venue: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Seogyo

이상한 날씨와 북극곰과 나

A Bizarre Weather Polar Bears, and I







©Robin Gillanders

북극곰과 내가 나란히 공존하는 행복한 세계에 대한 상상을 시작해봅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려 멸종 위기에 내몰린 북극곰과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인류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오랫동안 자연을 섬세하게 감각하고 들여다본 세 작가가 모여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참가작가: 신미나, 최성각, 캐슬린 제이미(온라인)

사회자: 한소범

일시: 9월 28일(수), 19:30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Let's picture a happy world in which polar bears and you coexist. The distance between polar bears, driven near to extinction due to melted glaciers by global warming,

and humans under crisis due to a new virus, no longer seems as vast as it once did. Here we have three authors who have taken a long, sensitive look at nature, sharing their thoughts on the environment.

Participants: Shin Mi-na, Choi Sung Kak, Kathleen Jamie(Online)

Moderator: Han Sobeom
Date/Time: Sept 28 (Wed), 19:30

16

Venue: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Seogyo

글 쓰지 않는 시간

Time Out From Writing



ⓒ박민주









긴 여정 속에서 가끔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거나 친구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듯이, 작가에게도 글 쓰지 않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창작의 원동력이자 빛나는 상상력의 원천으로 빚어내는 네 명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써내려가는 여정에 함께해 봅니다.

참가작가: 김멜라, 유희경, 이주혜, 조해주

사회자: 한소범

일시: 9월 30일(금), 16:00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Just as you have moments in the journey when you want to look up at the blue sky or lean on a friend's shoulder, there are moments when writers need some time off from work. Here are four writers who make the most of all the moments, turning them into an impetus for creation and a brilliant source of imagination. Join us for a journey into the stories they create.

Participants: Kim Mella, Yoo Heekyoung, Lee Juhve, Jo Hae Ju

Moderator: Han Sobeom
Date/Time: Sept 30 (Fri), 16:00

Venue: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Seogyo



작가의 방

A Writer's Room

참가작가의 작품 세계와 번역에 대한 견해를 세밀하게 들어봅니다. 언제든 펼쳐볼 수 있는 책처럼 언제든 '작가의 방'의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This program carefully examines the works and literary translations of the writers participating in SIWF 2022. Like an open book, each "Writer's Room" is there for you to explore at your leisure.



나란히 걷는 언어들

Languages Walking Side by Side





참가작가: 김혜순, 최돈미

사회자: 김행숙

일시: 9월 24일(토), 16:00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Participants: Kim Hyesoon, Don Mee Choi

Moderator: Kim Haengsook **Date/Time:** Sept 24 (Sat), 16:00

Venue: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Seogyo

검은 활자로 차분히 마음을 두드리던 언어들이, 작가의 음성을 만나 생동감 있는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에서 가장 날렵한 감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김혜순과 놀라운 시적 성취로 맥아더 펠로우십에 선정된 최돈미 시인이 나란히 마주합니다. 시의 언어와 운율로 온전히 채운 시간을 느껴보세요.

The words in black print that had quietly tapped at our hearts come alive in the authors' own voices. Enjoy an hour of poetry, language, and rhythm, as Kim Hyesoon, the poet whose sense of language is arguably the most shrewd in Korea, and Don Mee Choi who was awared the MacArthur Fellowship in recognition of her poetic accomplishments, sit face to face and share their works.

불가능적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ies





참가작가: 산티아고 감보아(온라인)

패널: 송병선 사회자: 허희

송출일시: 9월 30일(금), 14:00

Participant: Santiago Gamboa(Online)

Panel: Song Byeong Sun Moderator: Heo Hee

Date/Time: Sept 30 (Fri), 14:00

'21세기의 마르케스'라 불리는 작가 산티아고 감보아와 대표적인 중남미 작품들을 번역해 온 번역가 송병선이 만나 문학 번역의 '불가능적 가능성'을 되짚어 봅니다

Santiago Gamboa, 'the Marquez of the 21st century,' and Song Byeong Sun, a translator of major South American works, convene for a discussion on the 'impossible possibilities' of literary translation.

※ 본 행사는 관객 없이 사전 녹화로 진행되며 한국문학번역원 유튜브에 채널에 게재됩니다.

당신에게 가는 길 The Path to You



• **예술감독**: 성준혁

• Artistic Director: Hwak Seong

낭독공연 Performance

문학 작품이 또 다른 예술과 만납니다. 소설의 한 문장이 노래가 되고, 시의 어구가 춤으로 살아납니다. 작가들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탄생한 다양한 공연과 무대를 만나보세요.

Literature and a diversity of arts have combined forces to call out to you in unison.

A sentence from a novel turns into a song, a passage from a poem comes alive in a dance. Come and enjoy the variety of shows, readings, and other artistic performances inspired by the works of participating authors.

Performance -

- 참가작가: 이주혜, 유희경, 주민현, 나오미 크리처, 메가 마줌다르. 사샤 더그데일(온라인)
- 사회자: 조대한
- 일시: 9월 24일(토), 20:00 ●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 Participants: Lee Juhve. Yoo Heekvoung. Ju Minhyeon, Naomi Kritzer, Megha Maiumdar. Sasha Dugdale(Online)
- Moderator: Cho Daehan
- Date/Time: Sept 24 (Sat), 20:00
- Venue: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Seogyo

Performance - II

- 참가작가: 김언수, 이서수, 천선란, 산티아고 감보아 (온라인), 사만타 슈웨블린, 이윤하
- **사회자**: 이다혜
- 일시: 9월 29일(목), 19:30
-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 Participants: Kim Un-su. Lee Seo Su. Cheon Seonran, Santiago Gamboa(Online), Samanta Schweblin, Yoon Ha Lee
- Moderator: Lee Dahveh
- Date/Time: Sept 29 (Thur), 19:30
- Venue: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Seogyo

낭독회 Reading

참가작가들이 직접 읽어주는 소설과 시를 눈과 귀로 감상해보세요 Enjoy with your eyes and ears the literary readings given by our participating writers.

Reading - I

- 합가작가: 김멜라, 하성란, 현호정, 무라타 사야카, 우밍이(온라인), 카리나 사인스 보르고
- **사회자**: 서윤후
- 일시: 9월 24일(토), 18:00 ●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 Participants: Kim Mella, Ha Seong-nan, Hyun Hoieong, Murata Savaka. Wu Ming-vi(Online), Karina Sainz Borgo
- Moderator: Seo Younu
- Date/Time: Sept 24 (Sat), 18:00 • Venue: Community House Masil

Reading - II

- 참가작가: 신미나, 오은, 조온윤, 조해주, 포레스트 갠더, 캐슬린 제이미(온라인)
- **사회자**:서윤후

19

- 일시: 9월 27일(화), 19:30
-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 Participants: Shin Mi-na, Oh Eun, Jo Onyun, Jo Hae Ju, Forrest Gander, Kathleen Jamie(Online)
- Moderator: Seo Younu
- Date/Time: Sept 27 (Tue), 19:30
- Venue: Seoul Community Cultural Center Seogyo

This session will be pre-recorded without an audience and will be posted on LTI Korea's YouTube channel. 18

SIWF x FBS

SIWF x EBS

SIWF x 윤고은의 EBS 북카페

EBS <유고은의 북카페>를 통해 본 행사에서 미처 듣지 못했던 작가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참가작가: 강화길, 김보영, 조예은, 이원, 임철우, 강영숙, 천운영, 김현, 최성각

• **일시:** 9월 23일(금)-10월 2일(일) 12:00-13:00

• **주파수**: 104.5MHz(수도권)

SIWF x Yun Ko-eun's Book Cafe

SIWF joins hands with *Yun Ko-eun's Book Café* on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EBS) to offer a chance to delve deeper into the writer's mind.

- Participants: Kang Hwa Gil, Kim Bo-Young, Cho Yeeun, Yi Won, Lim Chul-Woo, Kang Young-sook Cheon Un-yeong, Kim Hyun, Choi Sung Kak
- Date/Time: Sept 23 (Fri)-Oct 2 (Sun) 12:00 13:00
- Frequency: 104.5MHz(Seoul Metropolitan Area)



※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Program details are subject to change

참가자 소개

Authors & Moderators

참가작가 Authors

강영숙 / 한국

Kang Young-sook / South Korea

소설가.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8월의 식사」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흔들리다』, 「날마다 축제」 등을 출간했으며, 장편소설로 「리나」, 「라이팅 클럽」 등을 펴냈다. 백시애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Kang Young-sook made her literary debut when she won the Seoul Shinmun New Writer's Contest with the short story "A Meal in August."

Her published works include the short story collections Shaken, Every Day Is a Celebration and the full-length novels Rina, Writing Club. Kang has received the Baek Shin-ae Literary Award and Lee Hyoseok Literary Award.

강화길 / 한국

Kang Hwa Gil / South Korea

소설가. 201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 "화이트 호스』, "대불호텔의 유령』 등이 있다.

Kang Hwa Gil debuted as a novelist in 2012 when she won the Kyunghyang Daily News New Writer's Contest. Her published works include A Good Person, A Different Person, White Horse and The Ghost of Daebul Hotel.

김멜라 / 한국

Kim Mella / South Korea

소설가. 자음과 모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20년 첫 소설집 『적어도 두 번』을 펴낸 후 『제목 미정』, 한영대역 소설 『옥상정원』을 출간했다. 『나뭇잎이 마르고」로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문지문학상을 수상했다.

Kim Mella debuted as a writer by winning the Jaeum & Moeum New Writer's Award. She published her first short story collection At Least Twice in 2020, and then published the short story collection Untitled, and the Korean-English bilingual novel The Rooftop Garden. She won the Munhakdongne Young Writers' Award and the Moonji Literature Award with the short story "Withering Leaves."

김보영 / 한국

Kim Bo-Young / South Korea

소설가. 2004년 과학기술 창작 문예에서 수상하며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진화신화』, "다섯 번째 감각』, "얼마나 닮았는가』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2021년 영문 단편집 "종의 기원과 그 외의 이야기들」로 전미도서상 번역서 부문 후보에 올랐다.

In 2004, Kim Bo-Young won the inaugural Korean Science & Technology Creative Writing Award with her first published novella. Her published works include An Evolutionary Myth, The Fifth Sance and How Alike Are We

The Fifth Sense and How Alike Are We.
Among her works in English translation.
"On the Origin of Species and Other Stories" was longlisted for the National Book Award for Translated Literature.

김언수 / 한국

Kim Un-su / South Korea

소설가. 197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장편소설 『캐비닛』, 『설계자들』, 『뜨거운 피』와 소설집 『잽』이 있다. 그의 작품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 번역 출간되었다. 『뜨거운 피』는 한국에서 영화로 제작되었고, 『설계자들』이 할리우드에서 영화 제작 중이다.

Kim Un-su was born in 1972 in Busan. His published works include the full-length novels *The Cabinet, The Plotters* and *Hot Blood,* as well as the short story collection *Jabl.* His works have been translated into multiple languages and published in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SA, France, Germany and Japan. *Hot Blood* has been made into a film in Korea, and *The Plotters* is currently being made into a film in Hollywood.

김혀 / 하국

Kim Hyun / South Korea

시인. 2009년 계간 《작가세계》에 「블로우잡」 외 5편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호시절』, 『다 먹을 때쯤 영원의 머리가 든 매운탕이 나온다』, 산문집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 『다정하기 싫어서 다정하게』를 냈다. 신동엽문학상, 무지개책갈피퀴어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Kim Hyun debuted as a poet in 2009 when his six poems including "Blow Job" featured in the quarterly Writer's World. He is the author of the poetry collections Good Times, When You've Almost Finished Eating, Fish Stew with The Head of Eternity Is Served, and the essay collections I Will Steal Your Sorrow and Affectionately So as Not to Be Affectionate. Kim has received the Shin Dong-yup Prize for Literature and Rainbow Bookmark Oueer Literature Prize.

김혜순 / 한국

Kim Hyesoon / South Korea

시인. 1979년 계간 《문학과지성》으로 등단하여 첫 시집 『또 다른 별에서』를 비롯 총 13권의 시집을 출간했고, 그 외 산문집 『여자짐승아시아하기』, 시론집 『여성, 시하다』 등 을 펴냈다. 2019년 시집 『죽음의 자서전』으로 2019년 캐나다 그리핀 시 문학상을 받았다.

Kim Hyesoon debuted as a poet in 1979 with the quarterly publication of *Munhak-kwa Jiseong*. She has published 13 poetry collections including *From another star*, essays *I Do WomanAnimalAsia* and collection of poetry *Women*, *Do Poetry*. Her poetry collection *Autobiography of Death* won the 2019 Griffin Poetry Prize.

나오미 크리처 / 미국

Naomi Kritzer / USA

소설가. 나오미 크리처는 9살 때부터 공상과학소설과 판타지를 썼고, 20년 넘게 작품을 출판해왔다. 그녀의 소설 『캣피싱 Catfishing on CatNet』은 휴고상과 로드스타 상을. 『고양이 사진 좀 부탁해요 Cat Pictures Please 는 에드거상을 수상했다.

Naomi Kritzer has been writing science fiction and fantasy since she was nine years old and publishing for over twenty years. Her fiction *Catfishing on CatNet* has won the Hugo Award and the Lodestar Award and she received the Edgar Award for *Cat Pictures Please*.

메가 마줌다르 / 인도

Megha Majumdar / India

소설가. 동시대 가장 주목받는 인도 작가이다. 1987/1988년 인도 서벵골주 콜카타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첫 번째 장편소설 『콜카타의 세 사람 *A Burning』*은 출간 즉시 뉴욕 타임스와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그해 전미도서상, 전미 비평가협회상 후보에 올랐다.

Megha Majumdar (born 1987/1988) is one of the most notable contemporary Indian writer. She was born and raised in Kolkata, India. Her debut novel, *A Burning*, became New York Times bestseller and topped Amazon charts in an instant. It was nominated for the National Book Award and the NBCC's John Leonard Prize in the same year.

무라타 사야카 村田沙耶香 / 일본

Murata Sayaka / Japan

소설가. 첫 소설인 『수유 授乳』로 2003년 군조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일본에서 1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편의점 인간 コンビニ人間』으로 제155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으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었다. 중편소설 『지구별 사람 地球星人』과 단편집 『생명의식 华命式』 또한 영어로 출판됐다.

Murata Sayaka's first novel, *Breastfeeding* won the 2003 Gunzo New Writers' Prize. In 2016, *Convenience Store Woman*, which was sold over 1.5 million copies in Japan, won the Akutagawa Prize and was listed on a Los Angeles Times Bestseller. Her novella, *Earthlings* and short story collection *Life Ceremony* are also published in English.

사만타 슈웨블린 / 아르헨티나

Samanta Schweblin / Argentina

소설가. 197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생했다.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작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 2017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른 『피버 드림 Distancia de rescate』, 2020년 다시 한 번 같은 상 후보에 오른 『리틀 아이즈 Kentukis』 등이 있다.

Samanta Schweblin was born in 1978 in Buenos Aires, Argentina. She is widely regarded as one of the key voices of the new Latin American literature. She is the author of the novel *Fever Dream*, which was shortlisted for the 2017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In 2020, Schweblin was again longlisted for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for *Kentukis*.

사샤 더그데일 / 영국

Sasha Dugdale / England

시인, 극작가, 번역가. 영국 서식스에서 태어났다. 시집 『변형 Deformations』, 『조이 Joy』를 발표했고, 2017년 시문학회 윈터초이스 어워드를 수상했다. 다른 작품으로는 『붉은 집 Red House』, 『이스테이트 The Estate』, 『노트북 Notebook』이 있다.

Poet, playwright and translator.
Sasha Dugdale was born in Sussex, England.
She is the author of the poetry collections; *Deformations* and *Joy*, which won the 2017 Poetry Book Society Winter Choice Award. Her other works are; *Red House*, *The Estate* and *Notebook*

산티아고 감보아 / 콜롬비아

Santiago Gamboa / Colombia

소설가. 1965년 콜롬비아 보고타 출생. 기자,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했다. 1995년 첫 장편소설 『귀향 페이지 Paginas de Vuelta』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대표작 『밤 기도 Plegarias nocturnas』, 메디치 외국 문학상 최종 후보에 오른 『율리시스 증후군 El sindrome de Ulises』 등을 집필했다.

Born in 1965 in Bogotá, Colombia, Santiago Gamboa is a novelist and journalist. He made his debut as a novelist with *Turned Pages*. He is the author of *Night Prayers* and *the Sindrome of Ulises* which was shortlisted for the Medicis Prize for foreign fiction.

신미나 / 한국

Shin Mi-na / South Korea

시인. 200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 쓸 때는 신미나, 그림 그릴 때는 '싱고'라는 필명을 쓴다. 시집으로 『싱고, 라고 불렀다』, 『당신은 나의 높이를 가지세요』, 『서릿길을 셔벗셔벗』을 집필하였다.

Shin Mi-na made her literary debut in 2007 when she won the Kyunghyang Daily News New Writer's Contest. She uses two pen names: "Shin Mi-na" as a poet and "Singo" as an illustrator. Her published works include the poetry collections I Called It Singo, You Can Have My Height and A Frosty Path.

오은 / 한국

Oh Eun / South Korea

시인. 2002년 월간지 《현대시》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호텔 타셀의 돼지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유에서 유』 등이 있다.

현대시작품상,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요즘은 '숨'이라는 단어를 자주 생각한다.

Oh Eun debuted as a poet in 2002 when his poems were published in the monthly journal *Korean Modern Poetry*. His published works include the poetry collections *The Pigs of Hotel Tassel, We Love Ambience* and *U to U*. He has received the Modern Poetry Award and Daesan Literary Award. These days, Oh often ponders upon the word "breathing."

우밍이 吳明益 / 대만

Wu Ming-yi / Taiwan

작가, 예술가, 교수이자 환경운동가이다. 『겹눈을 가진 남자 複眼人』는 주요 영문 출판사에서 출판된 첫 번째 대만 소설이다. 대만 오픈북 어워드를 6회 수상했고, 소설 『도둑맞은 자전거 單車失竊記』는 2018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올랐다.

Wu Ming-yi is a writer, artist, professor and environmental activist. Wu's novel *The Man With The Compound Eyes* is the first Taiwanese novel published by the major English-language publishers. He has won the Open Book Award (Taiwan) six times and the novel *The Stolen Bicycle* was longlisted for International Booker Prize in 2018.

유희경 / 한국

Yoo Heekyoung / South Korea

시인. 극작가이자 기획자로도 활동한다.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며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오늘 아침 단어』 『당신의 자리-나무로 자라는 방법』 『반짝이는 밤의 낱말들』 등을 퍼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Yoo Heekyoung is a Korean poet, playwright and planner. He debuted when he won the Chosun Ilbo New Writer's Contest in 2008. He is the author of the poetry collections Words of This Morning, Your Place: How To Grow into a Tree and the prose collection Sparkling Words of the Night. He has received the Hyundae Literary Award.

이서수 / 한국

Lee Seo Su / South Korea

소설가. 201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구제, 빈티지 혹은 구원」이 당선되며 등단했다. 장편소설 『헬프 미 시스터』를 집필했으며, 『당신의 4분 33초』로 제6회 황산벌청년문학상을, 단편소설 「미조의 시대」로 제22회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했다.

Lee Seo Su made her literary debut in 2014 when her short story "Relief, Vintage or Salvation" won the Dong-A Ilbo New Writer's Contest. She is the author of the full-length novel *Help Me Sister*. She received the 6th Hwangsanbeol Youth Literature Award for *Your 4 Minutes and 33 Seconds* and the 22nd Lee Hyoseok Literary Award for the short story "The Age of Mizo."

이원 / 한국

Yi Won / South Korea

시인. 시집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오토바이』,
"사랑은 탄생하라』, "나는 나의 다정한 얼룩말」 등이 있다.
산문집으로 "산책 안에 담은 것들』, "최소의 발견」,
"시를 위한 사전」이 있다. 현대시학 작품상, 현대시 작품상,
시작 작품상 등을 받았다.

Yi Won is the author of the poetry collections The World's Lightest Motorcycle, Let Love Be Born, I Am My Affectionate Zebra, and the prose collections Everything in a Walk, The Smallest Discovery, and A Dictionary for Poetry. Yi has received a number of literary awards including the Korean Modern Poetics Award, the Korean Modern Poetry Award and the Sijak Literary Award.

이윤하 / 미국

Yoon Ha Lee / USA

SF 소설가. 한국계 미국인이다. 데뷔 소설『나인폭스 갬빗 Ninefox Gambit』으로 2017년 로커스상을 수상했고 휴고상, 네뷸러상, 클라크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속편『레이븐 전략 Raven Stratagem』과 『레버넌트 건 Revenant Gun』도 휴고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8~12세 독자용 소설『드래곤 펄 Dragon Pearl』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Yoon Ha Lee is a Korean -American SF writer. He's debut novel, *Ninefox Gambit*, won the Locus Award for Best First Novel and was a finalist for the Hugo, Nebula, and Clarke awards. Its sequels, *Raven Stratagem* and *Revenant Gun*, were also Hugo finalists. His middle grade novel *Dragon Pearl* was a New York Times bestseller.

이주혜 / 한국

Lee Juhye / South Korea

소설가.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소설가로서는 2016년 창비 신인 소설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중편소설 『자두』를 펴냈으며, 옮긴 책으로 『나의 진짜 아이들』, 『사람의 아이들』, 『모든 빗방울의 이름을 알았다』, 등이 있다.

Lee Juhye is writer and a translator.
As a writer she debuted in 2016 by winning the Changbi Prize for New Figures in Literature.
She is the author of the novel *Plum* and has translated *My Real Children, Children of Men* and *I Knew Every Raindrop by Its Name* into Korean.

임철우 / 한국

Lim Chul-Woo / South Korea

소설가. 198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소설집 『아버지의 땅』, 『그리운 남쪽』, 『연대기, 괴물』 등이 있으며, 장편소설 『그 섬에 가고 싶다』, 『봄날』 등을 펴냈다. 한국창작문학상, 이상문학상, 대산문학상을 등을 수상했다.

Lim Chul-Woo made his literary debut in 1981 by winning the Seoul Shinmun New Writer's Contest. His published works include the short story collections Father's Land, Longing for the South and Chronicles, Monsters; and the full-length novels The Island, Spring Days. Ha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including the Korean Creative Writing Prize, Yi Sang Literary Award and Daesan Literary Award.

조예은 / 한국

Cho Yeeun / South Korea

소설가. 제2회 황금가지 타임리프 공모전에서 「오버랩 나이프, 나이프」로 우수상을, 제4회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에서 『시프트』로 대상을 수상했다. 『뉴서울파크 젤리장수 대학살』, 『칵테일, 러브, 좀비』, 『스노볼 드라이브』를 출간했다.

Cho Yeeun won the Excellence Prize at the 2nd Goldenbough Time Leap Fiction Contest with the short story "Overlapped Knife, Knife" and the Grand Prize at the 4th Kyobo Story Contest with the novel Shift. She is the author of New Seoul Park Jelly Vendor Massacre, Cocktails, Love and Zombies, and Snowball Drive.

조온윤 / 한국

Jo Onvun / South Korea

시인. 2019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햇볕 쬐기』가 있다. 문화동인 '공통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Jo Onyun debuted as a poet in 2019 when he won the Munwha Ilbo New Writer's Contest. He is the author of the poetry collection *Sunbathing*. Jo is a member of the literary collective 'Gongtongjeom.'

조해주 / 한국

Jo Hae Ju / South Korea

시인.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Jo Hae Ju is the author of the poetry collection Let's Talk About Something Else.

주민혀 / 하국

Ju Minhveon / South Korea

시인. 2017년 한국경제신문 시 부문으로 등단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킬트, 그리고 퀼트」를 출간했다. 2020년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창작 동인 '켬'으로 활동 중이다.

Ju Minhyeon debuted as a poet in 2017 when she won the Korea Economic Daily New Writer's Contest. She is the author of the poetry collection *Kilt and Quilt.* She won the 2020 Shin Dong-yup Prize for Literature. Ju is a member of the creative collective 'Kyeom.'

천선란 / 한국

Cheon Seonran / South Korea

SF 소설가.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 『천 개의 파랑』, 『나인』, 소설집 『어떤 물질의 사랑』, 『노랜드』를 썼다.

Cheon Seonran is a Korean science fiction writer. Her published works including the full-length novels A Broken Bridge, A Thousand Blues, and Nine; and the short story collections Some Shape of Love and No Land.

천운영 / 한국

Cheon Un-yeong / South Korea

소설가. 소설집 『바늘』, 『명랑』, 『그녀의 눈물사용법』, 『엄마도 아시다시피』를 집필했다.

장편소설 『잘 가라 서커스』, 『생강』, 에세이 『돈키호테의 식탁』, 『쓰고 달콤한 직업』 등을 출간했다.

Cheon Un-yeong published works include the short story collections *The Needle, Myeongrang, The Way She Uses Tears,* and *As Mother Knows;* the full-length novels *Farewell, Circus!,* and *The Catcher in the Loft;* and the prose collections *Don Ouixote's Table* and *A Bittersweet Job.*

최돈미 / 미국

Don Mee Choi / USA

시인. 『DMZ 콜로니 DMZ Colony』, 『하들리 워 Hardly War』, 『아침 뉴스는 흥미롭다 The Morning News Is Exciting』 및 시와 에세이가 실린 팸플릿을 다수 발표했다. 맥아더 펠로우쉽, 구겐하임 펠로우쉽, DAAD 베를린 예술인 펠로우쉽 등의 상을 받았으며,

그녀가 번역한 김혜순의 시집 중 『죽음의 자서전 Autobiography of Death』은

2019년 그리핀시문학상 국제부문을 수상했다.

Don Mee Choi has published *DMZ Colony, Hardly War, The Morning News Is Exciting* and several pamphlets of poems and essays. She is a recipient of numerous awards including MacArthur Fellowship, Guggenheim Fellowship and DAAD Artists-in-Berlin Fellowship. She has translated several collections of Kim Hyesoon's poetry, including *Autobiography of Death,* which received the 2019 Griffin Poetry Prize.

최성각 / 한국

Choi Sung Kak / South Korea

소설가. 1976년 강원일보, 198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지은 책으로는 "달려라 냇물아』, "쫓기는 새』, "산들바람 산들 분다』 등이 있다.

환경운동에 뛰어든 이래 환경단체 '풀꽃세상'을 창립했다. 교보 환경문화상, 요산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Choi Sung Kak made his literary debut by winning the 1976 Kang Won Ilbo New Writer's Contest and the 1986 Dong-A Ilbo New Writer's Contest. Choi's published works include *Run, Streams, Birds Being Chased, Gentle Breeze*. Choi joined the environmental movement and founded the environmental group 'Grass Flower World.' He has received the Kyobo Environmental Culture Award and Yosan Literary Award.

카리나 사인스 보르고 / 베네수엘라

Karina Sainz Borgo / Venezuela

소설가. 1982년 카라카스에서 태어났다. 문화면에 기고하는 기자로 일하면서 글을 쓴다. 1980년대 경제 공황 이후 현재 베네수엘라의 참상을 그려낸 첫 소설 『스페인 여자의 딸 It Would Be Night in Caracas』로 스페인어권 문학 사상 전례 없는 주목을 받았다.

Born in 1982 in Caracas, Venezuela, Karina Sainz Borgo is an arts journalist and novelist. Her first work of fiction, *It Would Be Night in Caracas*, presents a gripping portrait of modern Venezuela following the economic crisis. The novel has drawn unprecedented attention in the history of Spanish-language literature.

캐슬린 제이미 / 스코틀랜드

Kathleen Jamie / Scotland

시인이자 수필가. 1962년 스코틀랜드 출생. 그녀의 시집 중 『더 트리하우스 The Tree House』는 포워드 상을 수상했으며, 세 권의 에세이집 『발견 Findings』, 『시선들 Sightlines』, 『부상 Surfacing』은 모두 「자연에 관하 새로운 글쓰기'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Poet and essayist. Kathleen Jamie was born in Scotland in 1962. Her poetry collections include *The Tree House*, which won the Forward Prize. Her essays are collected in the three highly regarded books *Findings*, *Sightlines* and *Surfacing*, all regarded as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new nature writing.'

포레스트 갠더 / 미국

Forrest Gander / USA

시인. 지질학과 문학을 전공한 작가이자 번역가이다. 2019년 『비 위드 Be With』로 퓰리처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저서는 종종 생태학과 친밀감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가장 최근 작품으로는 『트와이스 얼라이브 Twice Alive』가 있다.

A writer and translator with degrees in geology and literature, Forrest Gander has accepted the 2019 Pulitzer Prize with his poetry collection, *Be With*. His books, often concerned with ecology and intimacy, include *Be With*, *The Trace*, and—most recently—*Twice Alive*.

하성란 / 한국

Ha Seong-nan / South Korea

소설가. 199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풀」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 『루빈의 술잔』, 『옆집 여자』, 『푸른수염의 첫 번째 아내』, 장편소설 『식사의 즐거움』, 『삿뽀로 여인숙』 등이 있다. 동인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Ha Seong-nan's writing career began in 1996 when her short story "The Grass" won the Seoul Shimmun New Writer's Contest. She is the author of the short story collections *Rubin's Glass, The Woman Next Door, Bluebeard's First Wife* and the full-length novels *The Pleasure of Eating, An Inn in Sapporo.*

Ha has received numerous literary awards including the Dongin Literary Award and Hwang Sun-won Literary Award.

현호정 / 한국

Hyun Hojeong / South Korea

소설가. 국어국문학과 인류학을 공부했다. 2021년 "단명소녀 투쟁기』로 제1회 박지리 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2022년 연극 '멀리 있다 우루는 늦을 것이다'에 각색과 출연으로 참여했다.

After studying Korean literature and anthropology at university, Hyun Hojeong debuted as a novelist in 2021 when her novel *The Struggle of a Short-Lived Girl* won the inaugural Park Ji-ri Literary Award. In 2022, she dramatized and starred in the play 'it's Far, Uru Is Going to Be I ate'

사회자 & 패널

Moderators & Panel

강유정

Kang Yu-jung

문학평론가. 2005년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 문학 평론이, 동아일보에 영화 평론이 당선되어 본격적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민음사 《세계의 문학》 편집위원으로 일했다. 저서로는 『스무 살 영화관』, 『시네마토피아』 등이 있다.

Kang Yu-jung's career in literary and film criticism took off in 2005, when she won three major writing contests hosted by The Chosun Ilbo, The Kyunghyang Daily News, and The Dong-a Ilbo respectively. She previously served on the editorial board of the literary magazine World's Literature published by Minumsa. Kang's publications include Cinema at Age 20 and Cinematopia.

강윤정

Kang Yun Jeong

문학동네에서 국내문학 도서를 편집하고 있다. 『문학책 만드는 법』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각자의 책을 읽는다』 등을 썼으며,

유튜브 채널 '편집자K'를 운영하고 있다.

Kang Yun Jeong is an editor at Munhakdongne, a publisher of Korean literature. Her works include *How to Put Together* a Book of Literature and *We Sit Together Reading Different Books*.

She is the creator of the YouTube channel "Editor K."

김행숙

Kim Haengsook

1970년 출생. 199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사춘기』, 『이별의 능력』, 『타인의 의미』, 『에코의 초상』, 『1914년』, 『무슨 심부름을 가는 길이니』를 출간했다. 산문집으로는 『에로스와 아우라』, 『천사의 멜랑콜리』 등을 출간했다. 대산문학상, 미당문학상, 노작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Kim Haengsook was born in 1970 and made her literary debut in 1999 through *Hyundae Munhak*, a monthly literary magazine.

Her poetry collections include *Adolescence*, *The Ability to Part, The Significance of Others, 1914*, and *Are You Running Errands*. She has also published the prose collections *Eros and Aura* and *An Angel's Melancholia*. She is a winner of the Daesan Literary Award, the Midang Literary Award, and the Nojak Literary Award.

서윤후

Seo Younu

2009년 《현대시》로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 『휴가저택』, 『소소소 小小小』, 『무한한 밤 홀로 미러볼 켜네』와 산문집 『햇빛세입자』,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을 출간했다. 제19회 박인환문학상을 수상했다.

Seo Younu made his literary debut in 2009 through Korean Modern Poetry. His works include the poetry collections All the Little Brothers of Someone; The Vacation Home: Small, Small, Small Jvlyly; Lighting Up the Mirror Balls, All Alone on an Endless Night; and the prose collections, The Sunshine Tenant and The List of the Things I'm Glad I Gave Up. He is the winner of the 19th Park In-hwan Literary Award.

송병선

Song Byeong Sun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다. 지은 책으로 『보르헤스의 미로에 빠지기』, 『가르시아 마르케스』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픽션들』, 『거미여인의 키스』, 『콜레라 시대의 사랑』, 『밤 기도』, 『청부 살인자의 성모』 등이 있다. 제11회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했다.

Song Byeong Sun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at University of Ulsan. His works include *Getting Lost in Borges's Labyrinth* and *Garcia Marquez*. He is the translator of *Fictions, The Kiss of the Spider Woman, Love in the Time of Cholera, Night Prayers* and *Our Lady of the Assassins,* among other works of Spanish literature. He is the winner of the 11th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ward.

심완선

Shim WanSeon

SF 평론가. 책과 글쓰기와 장르문학에 관한 글을 쓴다. 『우리는 SF를 좋아해: 오늘을 쓰는 한국의 SF 작가인터뷰집』, 『SF는 정말 끝내주는데』를 썼고, 『SF 거장과 결작의 연대기』, 『취미가』를 함께 썼다.

Shim WanSeon is a critic of science fiction. She writes about books, writing, and genre fiction.

Her works include We Love Science Fiction: Interviews of Today's Korean Science Fiction Writers and Sci-Fi is a Blast Reality. She has co-authored The Annals of the Masters of Science Fiction and Their Masterpieces and The Hobbyist

양경언

Yang Kyung-eon

문학비평가. 2011년 《현대문학》의 신인추천 문학비평 부문에 '참된 치욕의 서사 혹은 거짓된 영광의 시 : 김민정론'이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지은 책으로 비평집 『안녕을 묻는 방식』 등이 있다. 제37회 신동엽문학상 평론부문을 수상했으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양학과 객원교수이다.

Yang Kyung-eon is a literary critic. Her career took off when her review, "Narratives of True Disgrace, or Poems of False Glory: The Kim Minjeong Theory" was selected for *Hyundae Munhak*'s New Literary Critic Award in 2011. Her works include the book of literary criticism *How to Ask After Someone*.

She is the winner of the 37th Shin Dong-yeop Literary Award for literary criticism, and a visiti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Liberal Arts at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이다혜

Lee Dahyeh

작가. 저서 『아무튼, 스릴러』 『출근길의 주문』, 『여행의 말들』 등이 있다. KBS 라디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을 진행한다

Lee Dahyeh is an author. Her works include *Thriller Anyway, What and How to Say at Work,* and *Words on Travel.*She is the co-host of the KBS radio broadcast,
"Lee Dahyeh's Cinema, Jeong Yeowul's Library."

장선영

Jang Sunyoung

아나운서 및 국제행사진행자. 다수의 교양 및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한 방송 경력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 등 국제행사 진행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캠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Jang Sunyoung is an announcer and emcee for international events. She has successfully hosted a number of major international events including the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and the Trilateral Tourism Ministers' Meeting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She currently serves as an adjunct professor at the Mirae Campus of Yonsei University.

조대한

Cho Daehan

2018년 《현대문학》 평론 부문으로 등단했다. 《자음과모음》과 《파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Cho Daehan, a literary critic, made his debut in 2018 through *Hyundae Munhak*. He is on the editorial staff of the quarterly literary magazines. *Jaeum and Moeum* and *Paran*.

한소범

28

Han Sobeom

2016년부터 한국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다.

Han Sobeom has been a journalist at Hankook Ilbo since 2016.

허희

Heo Hee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2012년 계간 (세계의 문학) 신인상 평론 부문에 당선되어 문학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문학과 영화에 관련된 글을 쓰고, TV와 라디오 등에 출연해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다. 비평집 "시차의 영도」와 산문집 "희미한 희망의 나날들」을 냈다.

Heo Hee studied literature in college and graduate school. He began his literary career as a critic when he won the New Critics Award for the quarterly *World Literature* in 2012. He writes about literature and film, and makes appearances on TV and radio to discuss culture at large. His works include the book of literary criticism *The Freezing Point of Time Difference* and the book of prose, *The Days of Faint Hope*.

황인차

Hwang InChan

시인. 2010년 월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구관조 씻기기』, 『희지의 세계』 『사랑을 위한 되풀이』,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가 있다. 2012년 제31회 김수영 문학상과 2021년 제66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였다.

Hwang InChan made his literary debut in 2010 with the publication of his poems in the monthly journal *Hyundae Munhak*. He is the author of the poetry collections *Washing a Myna, Heejee's World,* and *Repetition for Love's Sake, Up To Here Is Future*. Hwang was awarded the 31st Kim Su-young Literary Award in 2012 and 66th Hyundae Literary Award in 2021.





Memo













서울국제작가축제

About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서울국제작가축제는 국내 독자들의 문학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이 서울을 무대로 쌍방향 교류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해 온 글로벌 문학 축제로, 2021년까지 총 58개국 268명의 국내·외 작가를 초청했습니다. 문학을 매개로 하여 세계와 언어, 삶과 문학, 작가와 독자가 이루는 다층적인 힘에 주목하여 국제적 규모와 위상을 갖춘 축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Launched in 2006, the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SIWF) is

a global literary festival aimed at expanding opportunities to enjoy literature and providing a platform for international exchange in Seoul.

Between 2006 and 2021,

a total of 268 writers from 58 countries were invited to take part.

By focusing on the multilateral impact created by writers and readers as well as life and literature,

the SIWF aspires to develop into
a festival of international renown and scale.



(a) @siwf_insta

@siwfest

@siwfest



무자 타다네이